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7호 [루계 제2302호]

주제 103
(2014). 11
22
토요일
음력 10. 1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와 2월20일공장,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올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 책임일군들에게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왔소. 당시 수산정책관철에서 앞장선 이곳 수산사업소와 인연을 맺게 되여 기쁘오,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소라고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며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올해는 황금해의 역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단풍2-04》호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물고기 가공장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너성들이 어로공가족들이라는것을 아시고 당시 수산정책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수산사업소의 종업원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뿐만 아니라 당정책관철자, 애국자들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관하 18호수산사업소는 당시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형단위라고 하시면서 사회의 수산부문을 비롯한 온 나라가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조선로동당에서 준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는 수산사업소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고 종업원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물로보게 변모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결만 보고서도 현대적인 식료공장이라는것이 알린다고, 공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고, 인민군대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식료공장을 가지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생산지휘 정보실, 과학기술보급소, 종합가공직장, 기초식품직장, 빠다직장, 당화직장, 포장재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도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훌륭히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생산지휘 정보실, 과학기술보급소, 종합가공직장, 기초식품직장, 빠다직장, 당화직장, 포장재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도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이 당시 바라는 수준에서

현대화되면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후방사업이나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립으로써 공장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여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모든 건물들의 외벽에 타일을 구색이 맞게 붙이니 정말 보기 좋다고,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으며 환해졌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헛되지 않고 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초식품직장, 강냉이가공직장, 정미직장, 남새가공직장, 즉석쌀밥직장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도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식료품들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식료가공공업에서도 인민군대가 당당히 앞장서 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전형단위를 창조하여 일반화하는것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고, 사회의 식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군대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현대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통계급이 자기들앞에 말려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 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오중흡7련 대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지휘관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2006년 3월 2일 이곳 부대를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전립한 현지지도사적비를 돌아보시며 주체적인 항공무력강화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군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장으로부터 군부대의 실태를 묵론하시고 군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의도대로 비행훈련을 생활화하고 주체적인 항공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며 비행사들을 그 어떤 현대전의 공중전투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억세게 준비시키고 있으며 비행기와 무기, 전투기술기재의 경상적인 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군부대 후방사업실태와 비행사들의 생활조건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외진 북면에 위치한 군부대인 것만큼

후방공급사업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대대강실과 비행조종련습종합강실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학습과 비행훈련준비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의 비행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와 크나큰 사랑속에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한 많은 위훈자들을 배출한 자랑높은 부대의 빛나는 투쟁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조국의 푸른 하늘에 영웅적위훈의 비행운을 새겨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잊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필생의 염원이고 의지였다.

그이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판문점에 새기신 불멸의 자욱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주체 85(1996)년 11월 24일 판문점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남기신

《김일성》

1994. 7. 7.》

이라는 친필이 새겨진 화강석 칠장을 돌아보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어려움 있는 수령님의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들이켜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날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분열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련방공 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3대 기둥, 3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염원과 의지대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할 드림없는 결심과 의지를 꾀력하시였다.

절세위인의 통일의지를 선언은 판문점의 퇴성마당은 삼천리 강토에 메아리쳤다.

당시 조선반도정세는 내외반 통일호전세력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 등에 의해 최대로 긴장되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에 떠들고 있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은 《북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이며 암살의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고 남조선의 반민족, 반통일세력은 《흡수통일》의 부질없는 암방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이런 속에서 쌍방이 종부리를 지척에서 마주하고 있는 최대열점 지역인 판문점에 나간다는 것은 보통의 담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판문점의 퇴성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과 통일을 위해 그처럼 위험천만한 판문점으로의 시찰을 단행하신 것이다. 그것은 밀려오는 전쟁불구름을 막아내고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빨찌산의 아들, 백두산 출명장의 담대한 시찰이었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필승의 신심과 랙관을 안겨준 통일에 국가의 거룩한 장거였다.

당시 남조선언론들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선물을 안겨주시려는 민족적 거사》, 《조국통일의 봉화를 지펴올리신 민족의 일대 장거》, 《분별의 상장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패거》 라며 위대한 장군님의 판문점 시찰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통일에 국의 장정을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현신에 의해 삼천리 강토에는 조국통일의 기운이 약동하기 시작하였다.

판문점의 퇴성은 마침내 우리 민족끼리의 새 시대를 펼치는 통일의 봄우로 더 큰 메아리를 울리며 터져올랐다.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판문점초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85(1996)년 11월 24일

나라와 민족의 절박한 중대사, 시대적파제인 조국통일성업을 하루빨리 이루하여 겨레의 소원을 풀고 민족적통상의 새 시대를 펼쳐야 한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오랜 세월 한강도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근 70년동안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애국애족의 정치경륜이 밝혀져 있는 로작들에도 조국통일성업을 위한 그이의 결심과 의지와 함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등 원칙적 문제들이 자자구구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

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고 의지이다.

넓은 도량과 포옹력, 고결한 의리와 덕망으로 민족을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는 온 겨레를 통일에 국에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대결의 역사를 끌장내시려고

고있다.

둘째 전 세계평화연합총재 문선명동포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울인 그의 노력과 공적을 헤아리시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조전과 위로의 말씀을 보내시였고 평양에서 추모행사를 잘 치르도록 조치하시였다. 지난해 8월에도 정몽현 전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

1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그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큰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가 잘 되기 바란다는 구두친서를 보내시였다.

통일에 국의 길에서 북남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도록 통일에 국에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록 하자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의지이다.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에서 련이이 발표된 종대제안과 공개서한, 정부성명 등의 자자구구에는 근 7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민족분열과 대결의 혁사를 끝장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혁사를 열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남공동선언이 울려퍼져 행성을 진감시켰다.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겨레의 가슴을 녹이며 판문점을 넘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 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환호의 꽃물결에 휩싸이고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이 춤지어 펼쳐져 판문점에서 통일의 함성이 끝

없이 울려퍼질 때,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들이 이어지고 북남간의 다채로운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격동적인 화폭을 목격하면서 겨레는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파연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삼천리를 격정에 설레이게 하

고 세계를 둘사이에 하는 민족사적인 사변들이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판문점시찰과 잊당아 있다고 생각할수록 겨레는 잊지 못할 11월에 세겨진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속에 높뛰는 숭고한 뜻을 온 냉으로 절감하였다.

그럴수록 온 겨레는 더더우 판문점으로 마음 달리며 이곳에서 울려퍼진 장쾌한 통일퇴성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다듬고 있다.

우리 조국이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던 때에 삼천리 강토에 메아리친 통일의 퇴성에 발들려 마침내 6.15시대가 펼쳐졌듯이 역사의 도전을 짓눌러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가슴 뜨거운 화폭들은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확신은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험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 이신 경에 하는 정정은원수님께서 서세계신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주체 101(2012)년 3월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일축즉발의 침에 대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찾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리하여 날과 더불어 삼천리 강토에 울려퍼진 통일의 퇴성은 잊지 못할 11월의 판문점의 퇴성과 함께 더 큰 메아리를 남기며 거대한 진폭으로 울려퍼져 온 겨레의 가슴을 격동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96(2007)년 10월 또 다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탄생시키시여 삼천리를 키나큰 기쁨과 환희로 둘씩이게 하여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온 겨레의 가슴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던 6.15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지금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다.

불신과 대결,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으로 점철되어온 그동안의 나날들은 우리 겨레에게 6.15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것인가 하는것을 폐부로 절감케 하고있다.

그럴수록 온 겨레는 더더우 판문점으로 마음 달리며 이곳에서 울려퍼진 장쾌한 통일퇴성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다듬고 있다.

우리 조국이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던 때에 삼천리 강토에 메아리친 통일의 퇴성에 발들려 마침내 6.15시대가 펼쳐졌듯이 역사의 도전을 짓눌러버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가슴 뜨거운 화폭들은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확신은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험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 이신 경에 하는 정정은원수님께서 서세계신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인 주체 101(2012)년 3월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일축즉발의 침에 대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최대의 열점지역인 판문점을 찾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리하여 날과 더불어 삼천리 강토에 울려퍼진 통일의 퇴성은 잊지 못할 11월의 판문점의 퇴성과 함께 더 큰 메아리를 남기며 거대한 진폭으로 울려퍼져 온 겨레의 가슴을 격동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겨레는 판문점에 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신심과 랙판에 넘쳐 거죽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것이다.

판문점의 퇴성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끝없이 울려퍼지며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드림 없는 외계

주체 85(1996)년 11월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의 친필비에 이렇게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실현에 기울이신 그 많은 날과 밤을 감회깊이 되새겨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각에 친필비준하여 주신 역사적문건이 바로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이였

주체 89(2000)년 8월 어느 날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언론사 대표들을 위한 연회가 진행될 때였다.

연회마감시간에 한 언론사 대표가 문득 위대한 장군님께 《국방위원장, 통일의 시기 가 언제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모든 대표들은

자못 놀라운 기색이었다.

물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모든 대표들은

자못 놀라운 기색이었다.

물음을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통일시기는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도 달려있다고 하시며

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꾀력하신 엄숙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절절한 소망이고

지향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력사앞에, 겨레 앞에

시

11월의 봄 우로

김태룡

조국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못 잊을 그날
우리 장군님
판문점을 찾으셨던 때는
락엽이 지는 마가을
한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이었다

이제 가을도 가고
겨울은 오리라
이렇게 분별세월 또 한해 가려니
그것이 가슴저려와
판문점 이 땅을 오래도록 겪으셨던가

걸음걸음 락엽이 부서졌다
어찌 한시인들 미루랴
수령님 유훈으로 남기신 조국통일
거례의 가슴속에

분별의 아픔과 고통의 락엽
더이상 덧쌓이게 할수 있으랴

친필비를 경건히 바라보시며
그이 하신 말씀이여
나는 수령님의 유훈대로
우리 시대에 반드시

보슬비가 내리네

김영일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내 마음엔 그날의 보슬비가 내
리네
어버이장군님 판문점 친필비앞에
서 계시던

11월의 보슬비 보슬비가 내리네

보슬비에 젖어드는 화강석친필비

한자한자 그 친필 우러르시는
장군님 애전복도 보슬비에 젖고
장군님 마음은 뜨거운 추억에
젖고…

수령님 통일한생을 다 말해주는 글발
신념의 글발로 심장에 새기신
장군님

그이는 선언하시였다
조국통일은 수령님의 네원파 의지
대로!

내리는 보슬비를 맞으시며
장군님 다지신 통일의 웅지
그 웅지를 통일의 새 시대로 펼치
시려
걸으신 길 밟쳐오신 고고속에
내리고내린 찬눈비는 그 얼마였
더니

보슬비 내리는 그 11월에

별씨 장군님마음속엔
혜빛이 눈부신 6.15의 하늘 창창
했고
겨레가 그토록 애하게 갈망하는
통일의 불화원이 화창하게 꽂되고
있었으니

6.15자주통일의
새 혁사를 이 땅에 안아오신
장군님의 그 불멸의 업적
다 말하여주는 11월의 보슬비
오늘도 그 은공 잊지 말라고
보슬비가 내리네

시 통일의 열풍 불어치리라

김송림

11월의 찬바람은 싸늘하게 불어도
후더워오거나
분별의 행기가 서려있던 이곳 판
문점에

장군님 남기신 통일의 거룩한
자욱

그 자욱을 안고 생각깊은 이 가
슴은

뜻깊은 11월의 그날을 넘어
내 마음 경애하는 원수님 오시
였던

그 3월에로 달음쳐가거니
얼마나 깊으셨으랴

장군님 그리시는 원수님의 심중은

통일의 장정을 이어오신 장군님
장군님의 그 통일념원 기어이 이
루리라
맹세가 끊었고

의지의 불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장군님 통일옹지로 뜨겁던 판문점
의 11월

원수님의 의지로 불타던 판문점의
3월

분열의 찬바람이 모질게 불어치던
이곳 판문점에 통일의 열풍 일으

키신
아, 장군님과 원수님의 송고한 모
습이여

11월의 뜻은 3월의 뜻으로 이어
지고
11월의 네원은 통일로 이루어지
려니
오, 판문점에 통일의 열풍 불어치
리라
원수님 계시여 이 땅 삼천리에
통일의 새 아침은 밝아오리라

금강산관광시작 16돐 기념

공동행사 진행

과 황호영 금강산국제관광
특구지도국 국장이 연설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 현대와 금강산관광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주고 계신
다고 하면서 그들은 북파 남
이 힘을 합쳐 금강산관광길
이 하루빨리 다시 이어지도
록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

갈것을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금강산관광시
작 16돐을 기념하여 공동식
수를 하였으며 현대총판계자
들은 금강산지구의 시설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2015년은 우리 민족이 수
십년간에 걸친 일제의 암
만적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수천년세월 한강토에서 한파
줄을 잊고 살아온 우리 거례
가 외세에 의해 물로 갈라
진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때
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근 70년에 이르는 비극적인
분열의 역사와 하루빨리 끝
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
일을 이루 할 드높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 10월 3일 평양의 단
군릉에서 진행된 개천절기
념행사에 참가한 단군민족
평화통일협의회 등 남조선
의 여러 단체 인사들은
《단군이래 만년문화민족
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자신들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일국가건설을 위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의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관과 민이 힘을 합쳐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
끌어내야 한다. 부디 단기

4347년 개천절민족공동행사
가 평화통일과 민족부흥의
길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하였다.

10월 13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는 《박근혜 정부》는 말
로만 〈통일대박〉을 웨치
지 말고 평화와 통일을 위
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리행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
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
드는 3월의 뜻으로 이어져나
가고 있다.

11월 1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늦봄 문의환목사 추모집회》
에서 발언한 리창복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
임대표의 장은 《이제 더이상

색당, 정의당, 《보안법 폐지
국민련대》, 유가협, 진보련
대 등 여러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해나섰다.

11월 16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늦봄 문의환목사 추모집회》
에서 발언한 리창복 6.15공
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
임대표의 장은 《이제 더이상

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재개를 통해 남북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야 한
다.》고 밝혔다.

《한민족운동단체협합》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개
의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남북이 약속한 합의
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의 화해, 협력으로 〈한〉반
도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평화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
자》고 호소하였다.

10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회가 주최한 1000회 목소리집
회에 참가한 통합진보당, 록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루려는 남북거례의 마음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족의 성원이라면 누
구나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것
이 조국통일이다. 근 70년간
이어져온 분열의 비극을 가
시려는 열망은 그가 북에 있
거나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하
나와 같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은 날로 뜨거워지는 남조선
민심의 통일열기를 애써 위
면한채 《통일준비위원회》
나 《통일현장》이니 하면
서 통일에 대한 《옳바른 인
식》을 심어준다고 분주장을

꾀워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
일》이라는 저들의 범죄적인
《체제통일》 인식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심어보려는 대결
적방동이다.

지난 시기 티령박이 《통
일황아리》 요 뛰요 하다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넣고 끌끌내 혁사의 시궁창
에 구역박힌 것도 민족의 통
일지향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흡수통일》당상을 추구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족은 북
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
와 단합으로 이루어진 통일
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제
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것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다.

민족이 서로 대결하지 않고
화해와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어낼 유일한 방도는 현
방제에 의한

《호국》연습은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남조선에서 이른바 《2014 호국》훈련이 끝났다.

두주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미국과 악합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 남조선호 전세력의 야망을 드러낸 위험한 만큼 불장난소동이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파들은 처음부터 이번 훈련의 목적을 남조선군이 《적의 도발》에 대비해 최고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성격도 《국지도발》,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합동훈련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국방부 장관 한민구와 합동참모본부의 장 최윤희를 비롯한 군부 우두머리들이 직접 전쟁연습 훈련에 참석하였다. 《적의 도발》이나 《단호한 응징》이니 하고 떠들며 반공화국 대결방기를 불어넣었다.

전쟁연습이 한창이던 13일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지난 조선전쟁 당시의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앞서 12일에는 강원도에서 이른바 《6·25 전사자 합동영결식》 등 《반공정신》을 고취하는 행사를 진행되었다. 이런 속에서 남조선 군부호전세력들은 지난 14일부터 대규모의 험함공증전투 훈련인 《맥스 캐터》를 발

광적으로 벌려놓았다. 21일 까지 진행된 이 훈련에는 남조선공군의 《F-15K》, 《KF-16》, 《F-4E》, 《F-5》, 《E-737》 등 40여대의 전투기와 미군의 《F-16》, 《KC-135》, 《FA-18》을 포함한 50여대의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투입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절대주종하는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베라 살포왕으로 북남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파국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군부호전세력이 미국과의 악합밀에 벌려놓은 북침전쟁연습소동이 실증되었다.

전쟁연습의 규모도 응근한 전쟁을 치를 사상최대 규모였고 군사분계선의 전구간과 남조선전역에서 루, 해, 공군은 물론 미군까지 포함된 합동군사연습이 광범위로 벌어졌다.

《전방군단작전계획》에 따른 《2014 호국》훈련은 다 깨진 소리와 같은 《년례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 호국》훈련은 《방어적》이나 《방어》의 외피를 쓴 북침전쟁연습이다.

더우기 문제는 그 자체가 예상치 못한 북침전쟁연습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에서 1년마다 개최되는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예상되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칼을 품은 《신뢰》, 전쟁대결속의 《대화》를 고집하는 한 북남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으며 북남관계문제는 언제 가도 폭리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관계개선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선의에 전쟁대결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위험천만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연습은 그 무슨 《년례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가를 날마다 실증해 주었다.

15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주변의 해안 일대에서 이지스함 등 20여 척과 항공기 40여대와 미해군과 동원되어 진행된 《2014 호국 합동상륙훈련》은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지휘와 공군은 물론 미군까지 포함된 합동군사연습이 광범위로 벌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 호국》훈련은 《방어적》이나 《방어》의 외피를 쓴 북침전쟁연습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떠들면서 그 막뒤에서 침략의 종칼을 시시각각으로 버리는 극악한 대결방식이다.

남조선당국이 칼을 품은 《신뢰》, 전쟁대결속의 《대화》를 고집하는 한 북남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으며 북남관계문제는 언제 가도 폭리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관계개선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선의에 전쟁대결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2014 호국》훈련에 미쳐날뛰는 남조선군

대하여 베라 살포용포탄까지 개발하는 그 자체가 동족대결의 새로운 창안품이고 그들의 대결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더우기 베라 살포로 고위급 접촉도 열리지 못하고 불신이 최대로 커가고 있는 이때에 전단탄을 개발하는 놀음을 벌리고 여기에 막대한 돈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 아말로 용납 못할 또 하나의 반복도발이고 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비렬한 추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일로 더욱 뚜렷히 알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니,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니 하는 남조선당국이 애말로 반민족적인 베라 살포의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전단탄은 전시에 작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남조선당국은 베라 살포 행위에 《정부》가 직접 가담하고 있으며 동족대결의 뿌리 깊은 흉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였다. 남조선당국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다. 입으로는 《대화》라며 이를 늘어놓으면서 행동은 단번내에만 일관하는 남조선당국의 런던 미숙이들이 노는 행동은 그 애말로 후배를 전도하는 것으로 인간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정치비극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이처럼 저지르는 혼란한 체면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권은 나라이 주인이 아니라 특권계층의 리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저들의 리속과 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여야간의 퍼터지는 정쟁과 구린내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아무리 투표해보아야 바뀌지 않는 사회현실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무관심을 낳아 정치의 방판으로 되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은 자격도 없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험담하고 그것도 부족해 서인지 《북인권사무소》의 서울설

남조선에서 보수집권세력들이 반공화국인권모약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그들이 미국무성 《인권》 특사와 같은 모약분자들을 끌어들여 《사이오인권포럼》으로 고위급 접촉도 열리지 못하고 불신이 최대로 커가고 있는 이때에 전단탄을 개발하는 놀음을 벌리고 여기에 막대한 돈까지 퍼붓고 있는 것이 아말로 용납 못할 또 하나의 반복도발이고 대결에 환장한 자들의 비렬한 추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오늘 남조선은 인권의 최대불모지, 사각지대이다.

다른 것은 다 쳐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몇 가지 사설자료를 통해 남조선인권상황을 보기로 하자.

정치에서 주인은 바로 인민들이며 해당 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정착참여는 그 나라의 초보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준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은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특권계층의 리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저들의 리속과 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여야간의 퍼터지는 정쟁과 구린내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아무리 투표해보아야 바뀌지 않는 사회현실은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무관심을 낳아 정치의 방판으로 되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각종 선거에서 투표율은 국상해야 50%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가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 자리로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남자대학률생과 남자대학률생의 취업률차이는 29%로 1위, 남녀간의 임금차이도 39%로 첫자리를 차지하는 등 남녀 불평등에서도 단연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가정세대들이 지고 있는 빚인 가계부채는 지금 1,000조원으로서 그 규모와 증가속도는 국심한 민족무위기를 겪고 있는 에스파냐를 통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성원국가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 자리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민관총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로 인민학총은 45.1%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불명예스럽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의 반인민적 악정과 허운물을 추구하는 기업주들의 부당한 행위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교통사고에 의해

하고 있다. 미국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인권문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나중에는 침략전쟁의 구실로까지 되는 것이 미국식 《인권》이다.

자국주민들은 물론이고 전인류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인권해로책동을 벌리고 있는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없다.

이번에 드러난 도청사건은 미국이 애말로 인권유린의 주범, 인권해로의 왕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생동한 자료이다.

이러한 미국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인 공화국을 겨냥하여 《인권》 소동을 벌리며 그 무슨 《북인권법》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최악의 인권폐허인 미국에 대한 인권법부여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악의 제국 미국로부터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의 도청사건에 대해 말할 때 사람들의 기억속으로는 1972년의 《워터게이트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자기의 대통령재선을 위하여 심복들과 정장군들을

동의 훈련령 청이 보여주듯이 이른바 《유사시》 공화국에 대한 상륙침투와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체공격연습들이다.

15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주변의 해안 일대에서 이지스함 등 20여 척과 항공기 40여대와 미해군과 동원되어 진행된 《2014 호국 합동상륙훈련》은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지휘와

공군은 물론 미군까지 포함된 합동군사연습이 광범위로 벌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4

호국》훈련은 《방어적》이나 《방어》의 외피를 쓴 북침전쟁연습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떠들면서 그 막뒤에서 침략의 종칼을 시시각각으로 버리는 극악한 대결방식이다.

남조선당국이 칼을 품은 《신뢰》, 전쟁대결속의 《대화》를 고집하는 한 북남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으며 북남관계문제는 언제 가도 폭리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관계개선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선의에 전쟁대결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 범죄행위는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대결악습을

벌려야 한다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화국 《인권》 모약소동에 더욱 광범위라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이를동안 서울에서 남조선당국이 주최하는 《사이오인권포럼》이라는 것이 열리었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포럼》에 미국의 국무성 《인권》 특사와 유엔 《부인권》 특별보고관까지 끌어들여 저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약소동을 합리화, 《국제화》 하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을뿐 아니라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데려온 조선에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여당인 《새누리당》

도 《북인권법》 제정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의원들이 지마다 나서서 《국회》에서 10년째 재류중인 《북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목에 피대줄을 둘구었는가 하면 《북인권개선》을 당의 《강령》에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녀

두리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인권모약소동이 미

국의 대조선적대시 압살책동에 속종하여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기어이 허물어보려는 범죄적인 체제대결책 등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온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대결네두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주제넘는 《인권》 타령에 침을 뱉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인권문제로 지탄받아야 할 당사는 바로 남조선의 파쑈당국이다. 그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동토대가 남조선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횡포와 《정부》의 무능력에 의해 풋같은 10대의 학생 수백명이 바다속에 수장되는가 하면 사람 놀이 세상을 저주하며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수많은 사람들을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이 바로 인권의 생지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진정한 사고와 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남조선의 비참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피면서 한줄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 베라 살포를 벌리고자 《북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보수세력의 악랄한 《북인권》 소동이야말로 민족의 머리우에 불행과 재난의 불구름을 불어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인 동시에 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인권이자 곧 국권이다. 오늘은 반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지휘조종에 남조선보수세력의 벌리는 《인권》 소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무자비한 철주를 안겨 달호히 짓부셔버릴 의지에 넘쳐져 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은 주제넘게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퍼우는 더러운 대결악습을 벌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한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극우보수강派들을 내몰아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두하는 베라 살포동을 펼쳐놓는다.

그러나 온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대결네두리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주제넘는 《인권》 타령에 침을 뱉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인권문제로 지탄받아야 할 당사는 바로 남조선의 파쑈당국이다. 그것은 최악의 인권유린지대, 인권의 동토대가 남조선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침에 한 북남관계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을 물고 들어지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대결책동으로 인해 더욱 더욱 악화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보수세력은 《인권》 소동으로 이해해 대체로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조선의 비참한 인권실태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피면서 한줄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 베라 살포를 벌리고자 《북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보수세력은 《인권》 소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고 무자비한 철주를 안겨 달호히 짓부셔버릴 의지에 넘쳐져 있다.

남조선보수세력은 주제넘게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퍼우는 더러운 대결악습을 벌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미국부터 수술해야 한다

입만 터지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미국에서 최대의 인권침해사건이 또다시 드러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북파 남, 해외의 1세, 2세들은 누구나 이름난 화가 배운성을 알고 있다.

그는 나라 없던 시절 유럽에서 고학을 하고 수많은 미술작품들을 내놓았으며 고향인 서울에서 미술창작도 하고 50대 이후에는 공화국의 품에서 살면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미술가 후비들도 키워냈다.

꼭 젊은 그의 한생은 예술가의 운명은 해당 사회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옳은 창작지도와 방법이 가지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증해 주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00년 7월 서울시 종로구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소년으로 동을 하면서 밤에 애학을 다니었다.

3.1 운동봉기가 일어나자 반일지하운동에도 관계하여 신문 『자유신종보』, 『혁신공보』를 비밀리에 등사하여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는 일을 하였다.

3.1 운동관계자들에 대한 일제의 계속되는 체포구금 소동을 피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일본에 와있는 자본가의 아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후 자본가의 아들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그는 심부름꾼으로 따라가야 하였다. 그리하여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 가게 되었다.

그는 그 기회에 고학으로 제빈 풍크미술학교와 국립미술종합대학에서 전문적인 미술공부를 하였다.

그후 병에 걸린 자본가의 아들이 서울로 돌아갔으나 심부름꾼인 그에게는 귀국 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지 않아 정처 없이 떠돌이하는 신세가 되고 베를린에 물려 앉고 말았다. 나라 없는 식민지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미술가들

어느 제도가 삶의 긍정과 보람을 주었는가

청년의 가련한 신세를 아무리 한탄해야 하소연 할데도 없고 생의 순간순간을 돋으로 메워나가는 이 도시에서 배운성은 고독과 절망으로 하여 자신을 걸잡지 못하였다.

그는 1930년 대학연구원을 졸업하면서 개인미술창작발표회에 유화, 판화, 수채화 등 40여 점을 전시하였다.

개인미술전람회를 벌려놓

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국

에 대한 향수가 늘 그의 마

음을 피롭히였다.

배운성은 조국에 대한 그

리운 마음을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전통을 보여주

는 화면에 담으려

고 노력하였다.

파쇼도이췰란드

에 의해 제2차 세

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전란을 피해 부랴부랴 홀몸

으로 일본에 가는

배에 몸을 싣고 귀국하였다.

창작실도, 작품

들도 다 접어던지

고 19년 만에 서울

에 돌아온 그는

얼마간 정신을 가

다듬고 있다가 다시

미술창작을 하

여야 하겠다고 결

심하였다.

그리하여 회화

연구실을 설립하

고 젊은 판화가

들을 키워내는

데 심혈을 기울

이었다.

40대를 넘어선 그는 해방후 남조

선에서 전보적인

1930년대 도이췰란드나 프랑스에서 보면 나날은 정치적 사변과 경제적 혼란, 사회의 무질서와 악육강식의 생활풍조, 문화분야에서의 추상주의 예술이 판을 치는 일대 한무장속에서 훌리간 식민지미술의 고달픈 생활의 흔적이었다.

그는 1930년 대학연구원을

졸업하면서 개인미술창작발

표회에 유화, 판화, 수채화

등 40여 점을 전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배운성은 도이췰란드문화원 회원의 자격을 가지었으며 주변나라 미술협회 초청으로 개인미술전람회를 열게 되었다.

1934년 체스코슬로바코(당시)의 수도 브라하에서 국제목관화전람회가 진행되었는데 그가 창작한 목판화 『상상화』가 입선되었다.

미술창작을 더 활기 있게 하기 위해 1937년 프랑스 빠리에 간 그는 쇠르팡찌에 화랑에서 판화, 유화, 수채화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고 개인미술전람회를 가지었다.

배운성은 프랑스 국립미술협회 회장식 및 유화분과 회원이 되었으며 화가로서의 명예가 생기며 주변의 여러 나라 미술박물관들에서 작품을 소장시키는데 이르렀다.

서유럽에서 배운성이 창작한 작품들에 반영된 화가의 사상감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애국의 마음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다.

유화 『나의 고향』(1931)은 우리 나라 농촌의 민속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그 기회에 고학으로 제빈 풍크미술학교와 국립미술종합대학에서 전문적인 미술공부를 하였다.

그후 병에 걸린 자본가의 아들이 서울로 돌아갔으나 심부름꾼인 그에게는 귀국 할 수 있는 돈을 보내주지 않아 정처 없이 떠돌이하는 신세가 되고 베를린에 물려 앉고 말았다. 나라 없는 식민지

문예인들과 함께 예술종합대학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당시 배운성은 프랑스나 도이췰란드에서처럼 예술종합대학을 내오고 해방된 새 조선의 민족예술을 발전시키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인민위원회들을 비롯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을 강제해산하고 애국적인 인사들을 닥

치는 대로 겸겨 투옥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혼란된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판매한 돈 50만원을 새 사회를 위한 진보적인 단체들의 애국적 투쟁 자금으로 바치는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배운성은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국립미술제작소 판화부를 책임지고 일하면서 사회계급적 장이 뚜렷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판화 『미제의 만행』(1950), 『유격대원들』을 비롯한 판화들을 창작하여

전쟁승리를 위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그는 남조선의 혼란된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판매한 돈 50만원을 새 사회를 위한 진보적인 단체들의 애국적 투쟁 자금으로 바치는 의로운 행동을 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인민군대 오를 따라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온 그는 새로운 창작의 길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알게 되었고 참된 예술가의 생활과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체험하고 절감하였다.

일제 강점기 수난당한 민족의 설움과 온갖 불행을 체험하였고 홀로 유럽의 추상 예술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 있다.

당시 그의 작품들은 사상

예술성이 높은 수준에서

장되어 있다.

또한 그는 판화의 특성에 맞게 선을 아담하고 선명하게 살리면서 판화적인 색채의 단순성과 력점을 함축의 조형적 원리에 따라 잘 응용하였다.

배운성은 유화와 수채화도

능숙하게 하는 흔치 않은 화가였다. 그가 그린 유화들은 대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묘사대상의 중심을 뚜렷이 살리고 주위의 번잡한 물체는 대답하게 밀어버리면서도 무리가 없이 처리하는 묘기

를 가지고 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과 평양

미술연구소에서 교편을 잡고 우수한 판화가들을 많이

키워냈다.

교육자이며 미술창작가인

배운성은 공화국의 품에 안

긴 그날부터 자신이 찾아야

했던 진정한 창작세계에서,

민족미술의 후비를 키워내

는데서 삶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활다운 한생을 보

내았다.

그가 공화국의 품 속에서

정진한 삶을 보낸 나날은 꼭 절 많은 지난 시기 운명의 가시덤불을 말끔히 들어내고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며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혁사에 남는 명작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궁지 높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활을 통하여 터득한 뜻깊은 나날들이었다.

남조선미술계의 일부 사들은 배운성을 유럽에 처음으로 류학을 간 조선의 청년으로 자랑하며 또 일부 계층들은 유럽에서 이름난 조선의 화가라고 알고 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판화에 발전 전시에서도 두렵한 자족을 새기었다. 즉 고전 판화에 대한 탐구와 조선화의 전통을 밀바탕으로 하여 표현적인 선을 위주로 살리면서 조선적인 맛이 나게 형상화하였다.

또한 그는 판화의 특성에 맞게 선을 아담하고 선명하게 살리면서 판화적인 색채의 단순성과 력점을 함축의 조형적 원리에 따라 잘 응용하였다.

배운성은 유화와 수채화도 능숙하게 하는 흔치 않은 화가였다. 그가 그린 유화들은 대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묘사대상의 중심을 뚜렷이 살리고 주위의 번잡한 물체는 대답하게 밀어버리면서도 무리가 없이 처리하는 묘기

를 가지고 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과 평양

미술연구소에서 교편을 잡고 우수한 판화가들을 많이

키워냈다.

교육자이며 미술창작가인

배운성은 공화국의 품에 안

긴 그날부터 자신이 찾아야

했던 진정한 창작세계에서,

민족미술의 후비를 키워내

는데서 삶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활다운 한생을 보

내았다.

그가 공화국의 품 속에서

장되어 있다.

또한 김치는 동백

경화와 당뇨병, 암을 비

롯한 여러 가지 종합 병

들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높으며 비만증을 치료하

는데도 효과적이다.

하여 오늘 김치는 전

장수식 품으로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나라들에서 김치

가 중요한 식품으로 되고 있다.

본사기자



배운성의 작품 목판화 『나들이』(1955년)와 『봄날』(1958년)

* 국가 과학원에서 *

최근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최첨단기술의 하나로 공인되어 있는 금도금지레이자인쇄기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금도금지레이자인

쇄기기술은 각종 도서

나 문서들을 수천년 동안

동안 원문그대로 영

구보존할 수 있게 하

는 최첨단기술로서

과학기술로서의

성과를 이루었다.

국가과학원 레이자인

쇄기기술은 세계 최초로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원본은

금도금지레이자인

쇄기기술로